
승정원일기, 왕들의 살아 있는 역사



김종렬 글 | 노준구 그림 | 140쪽

■ 5, 6학년 중심 학년군

사회: 《승정원일기》의 정치적, 역사적 의의 그리고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한다. 《승정원일기》에 담긴 방대하고 다양한 역사 자료를 통해 조선의 역사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텔레비전 사극을 보면 왕 왼쪽 작은 상에 앉아 기록을 하는 두 사람을 볼 수 있다. 두 사람 가운데 왕과 가까운 사람이 승정원 주서(注書 기록할주·쓸서)이고, 그 옆 사람은 예문관 전임사관이다. 여기서 승정원은 오늘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고, 주서는 임금의 말과 정책을 기록하는 속기사이다. 이 속기사가 쓴 임금의 말과 승정원의 하루하루 업무를 낱알이 모아 낸 것이 바로 《승정원일기》이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후기 1623년 3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288년간의 역사 기록으로 임금의 비서실 승정원의 ‘업무일지’이다. 《승정원일기》는 3,243책에 2억 4,259만여 자나 된다. 이는 472년간의 기록 《조선왕조실록》보다 다섯 배나 많은 분량이고,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역사 기록이다.

[학습 목표]



《승정원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먼저 그날의 날씨와 날씨를 기록하고, 일기를 쓴 주서 이름을 쓴다. 그 다음으로는 여러 관청에서 올린 보고서나 유생들이 올린 상소와 이에 대한 임금의 답변, 관리들의 근무 이동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임금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기록한다.

《승정원일기》는 하루도 빠짐없이 썼기 때문에 그날그날 하루의 정치, 한 달의 정치, 한해의 정치 흐름을 그대로 알 수 있다. 또 중앙 관청이나 지방에서 올라온 상소문을 원문 그대로 옮겨 놓았고, 왕의 건강 상태도 기록했다. 또 왕이 일을 보던 곳이나 시간대별로 왕이 한 일을 꼼꼼히 기록해 놓아 마치 ‘동영상’을 보는 듯하다. 이 책에서 《승정원일기》 기록을 담당한 관청인 승정원과 실무자인 승지와 주서들, 《승정원일기》의 의의와 구성, 《승정원일기》에 담긴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 ▶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실록》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 ▶ 승정원이 무슨 일을 하는 관청인지 알아보자.
- ▶ 승정원의 책임자 ‘도승지’가 하는 일을 알아보자.
- ▶ 왕이 하는 말을 사실 그대로 기록한 승정원 관리는 ‘주서’이다. 주서가 하는 일을 알아보자.
- ▶ 조선의 ‘대간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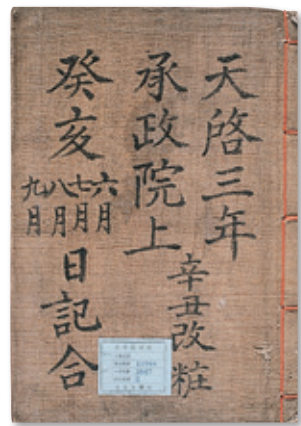
책 읽기 전 해 볼 수 있는 질문과 활동

➔ 《승정원일기》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되었다. ‘유네스코와 유산(Unesco & Heritage)’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or.kr>)에 들러 세계기록유산(World Documentary Heritage)이 뭔지, 한국은 지금까지 몇 건이 세계기록유산에 올랐는지 알아본다.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란?
- 유네스코는 언제부터 세계기록유산을 정하기 시작했을까?
-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록유산 몇 건이 세계기록유산에 올랐는지 알아보자.
- 다른 나라 세계기록유산은 어떤 것이 올랐는지 살펴본다.

▶ 유네스코는 1997년부터 2년마다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사업의 하나로 세계기록유산(World Documentary Heritage)을 정하고 있다.

2015년 기준 107개국의 348건이 세계기록유산에 올랐는데, 이 가운데 우리나라 기록유산은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2001년 《승정원일기》와 《직지심체요절》 하권, 2007년 ‘해인사 대장경판과 여러 경판’과 《조선왕조의궤》, 2009년 《동의보감》, 2011년 《일성록》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물’, 2013년 《난중일기》, 2013년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5년 ‘한국의 유교 책판’과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이렇게 13건이 세계기록유산에 올랐다. 이는 세계에서 네 번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록 문화와 정신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승정원일기)



책을 읽고 난 후 내용 이해를 위한 활동



➔ 《승정원일기》 골든벨을 올려 보자.

- 선생님은 학급을 두 모둠으로 나눈다.
- 모둠별로 열 문제씩 내게 한다. 선생님도 열 문제를 낸다.
- 서른 문제로 골든벨을 개최한다.
- 상품은 과자로 하여 그 자리에서 다같이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한다.

▶ 《승정원일기》는 임금의 비서실 기록인 만큼 왕과 신하들의 의는 내용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의논을 하는 동안 왕의 낯빛과 기분까지도 낱낱이 기록했다. 《조선왕조실록》이 단 몇 줄로 결과만 기록한 것과는 달리 《승정원일기》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왕과 신하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한 자도 안 빠뜨리고 알뜰히 기록했다. 그래서 《승정원일기》를 보면 어떤 일의 처리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 일기는 아직 우리말로 모두 번역 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쉬지 않고 번역을 하고 있다.

